

## 생명의 삶 + PLUS

### 나눔식 소그룹

01 사랑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라(고전 14:1~12)

02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고전 15:50~58)

03 금식 기도와 신앙의 결단(예 4:1~17)

04 새로운 조서, 반전의 은혜(예 8:1~10)

### 알려드립니다

나눔식 소그룹 매뉴얼은 금요일을 기준으로 그 주간의 주일~목요일 중 하루의 본문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생명의 삶』과 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으며, 『생명의 삶+PLUS』에서는 지도자들을 위한 해설을 추가해서 실고 있습니다. 교회별로 소그룹 모임에서 『생명의 삶』을 교재로 삼고, 『생명의 삶+PLUS』의 소그룹 매뉴얼을 강의안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에 실린 지도자를 위한 해설은 『생명의 삶』 홈페이지([www.duranno.com/qt](http://www.duranno.com/q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1~12

# 사랑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라

## 하나님 찬양하기

예성령의 은사를 (새 196, F)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와 찬양, F)

**Focus**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 사용의 길은 사랑을 추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오래전에 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후 세상에 가 보았더니 모든 사람의 팔 관절이 고장 나 팔을 굽히지 못하더라. 팔이 아파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먹지 못하니 모두 말라서 뼈만 앙상했고, 얼굴은 굵주림과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반면 천국에 가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이 통통하게 찌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잘 살펴보니 그들 역시 모두 팔을 굽히지 못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먹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넣어 주고 물도 마시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화이지만 상징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중심성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모든 인간 사이에는 이런저런 이해관계의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타인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자기중심적 태도, 즉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 정대서,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두란노)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면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고린도전서 14:1~1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이미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주의 신학자 렌스키는 '은사란 사랑이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표현은 '정열적으로 열망하라'는 의미로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 중에서도 외적

으로 신비로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게다가 방언이 아닌 다른 은사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며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악기 소리와 전쟁의 나팔 소리를 예로 들며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함을 서술합니다(7~10절).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서로에게 영적 진리를 선포하며 '덕을 세우는'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3, 12절).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무엇이며,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4절)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바울은 예언을 통해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길 원했습니다.

해설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집요하게 추적하라'는 의미입니다. '추구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디오코'는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거나 형사가 범죄자를 추적하듯 집중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빌 3:12, 14).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추구'를 강조하는 것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1절에서 사모하라고 권면한 신령한 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언이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라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3절).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덕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조언하거나 권면하거나 위로함으로써 사람들이 당면한 고통을 잘 견뎌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상대적으로 유익하며 더 큰 은사입니다.

적용과 나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사는 무엇이며, 어떤 동기로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우리는 흔히 말하는 위대한 은사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임을 보여 주는 증거라도 되는 듯 착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은사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다가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로 책망받은 이들을

떠올려야 합니다(마 7:22~23).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라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은사를 받은 이들보다 그의 구원은 더 확정적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요일 3:14)라고 증거하듯이 사랑의 은사만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의 덕이며, 최고의 은사입니다(고전 13:13).

**관찰과 묵상 2** 바울은 누군가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무엇에 비유했나요?(7~11절)

바울은 피리, 거문고, 나팔 등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 외국인(야만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설** 11절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외국인’(헬, 바르바로스)입니다. 이는 본래 ‘헬라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늘날 영어에서 ‘야만인’, ‘미개인’을 뜻하는 ‘바바리언’(barbarian)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야만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인이 아니거나 헬라화하지 않은 모든 이방인을 야만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한 형제와 같은 성도 사이에도 급격한 단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단절 속에서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인처럼 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은사든 본질에서 벗어난 과도한 사용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덕함의 상태를 ‘자기의 덕을 세우고’(4절), ‘허공에다 말하는 것’(9절)으로 표현함으로써 방언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며 무익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다섯 마디 예언의 말이 일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며 통역과 예언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것을 교훈합니다(13, 19절).

**적용과 나눔** 방언 사용과 관련해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무분별한 방언은 음색이 구별되지 않는 피리나 거문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7절), 전투를 패하게 하는 나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8절). 피리나 거문고 혹은 나팔처럼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사람이 그 악기를 잡을 때입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악기로 소음을 만들어 낼 뿐이지만, 전문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의 손에 하프가 들렸을 때 악신 들렸던 사울의 정신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도 악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연주되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록하고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

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려고 외치는 방언은 결국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13:1~3).

#### 말씀 다지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로 인해 불거진 분쟁의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역설하며 '그중의 제일은 사랑'(13:13)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덕을 끼치기 때 문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교회에 덕이 되는가?'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생명을 전할 수 없으며,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면 상대방에게 외국인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도록
-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게 주신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길 원합니다. 저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지체들을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에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지방 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한 정책을 세우고 중앙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2. 스리랑카에서는 사실상 노예제가 존재하며, 아동 인구의 1% 정도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이 닿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전 14:1



고린도전서 15:50~58

##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 찬양하기

행군 나팔 소리에 (세 360, Eb~D) 세상 권세 멸하시려 (경배와 찬양, D)

**Focus** |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마음 열기** 🌿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합니까? 남에게는 없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해 멸었던 눈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지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치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훔쳐 간 세상의 영이 있습니까? 그 영들이 커 보입니까? 무서워 보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먼지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촛농처럼 녹아 버립니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의 아들들, 자기를 아는 자신의 백성이 예배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던 원수마귀의 꾀계가 그 자리에서 녹아 버립니다. 어제까지 원수마귀에 사로잡혀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불치병에 걸렸다고 유언장을 쓰던 사람들이 교회 맨 앞자리에 나와 뛰면서 찬양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 이만아, 「하늘의 신부」(두란노)  
한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해 기뻐한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고린도전서 15:50~58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며, 살아 있던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50~53절). 또한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 온 사망의 권세가 더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54~57절).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58절). 이러한 바울의 지적은 성도들을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현재의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울은 ‘혈과 육’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조했나요? 그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때의 비밀은 무엇인가요?(50~52절)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때, 곧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산 자들은 그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해설 50절에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바로 ‘혈과 육’과 ‘하나님 나라’,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과 ‘썩은 것’은 불완전하며 죄 아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와 ‘썩지 아니한 것’은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전자로 인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장차 썩어질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빌 3:20)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44절).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통해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복과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이미 육신이 썩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체가 되며, 살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몸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과 재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도록 권면합니다.

적용과 나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미국 시인 롱펠로(H. W. Longfellow)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없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변화다. 죽음의 입김이라는 이 생명은, 생명 낙원의 외곽 지대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입구를 사망이라 부를 뿐이다.” 비록 죽음을 너무 미화한 점이 없진 않지만,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시인의 통찰은 죽음을 기쁨으로 대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큰 교

훈을 줍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물론 죽음은 다 정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별은 잠시이고,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재회할 것을 확신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2 바울은 사망의 궁극적 패망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성도가 사망에 대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55~57절)**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사망의 패망을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참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해설** 바울은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을 격앙된 어조로 설명합니다(55절). 본래 호세아 13장 14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70인역(LXX)은 이 구절을 바울이 인용한 표현과 유사하게 “죽음아 네 처벌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가시가 어디 있느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사망의 궁극적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사망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부르고, ‘어디 있느냐’라는 의문사를 두 차례 사용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매우 실감 나게 드러냅니다. 사망은 이제 더는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으며,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쏘는 것’은 전갈과 같은 독충이 지니는 치명적인 독침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망이 가지는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전히 깨졌고 힘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내가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바울은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58절). 그가 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라고 노래하듯이 성도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과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

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팔이 항상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나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 말씀 다지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새 몸을 입고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그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백성에게 권세로 주어졌습니다(요 1: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변화될 몸을 기대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부활 신앙을 선포하도록
-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승리를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더욱 힘써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자녀 신앙 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신앙 교육 패러다임이 '교회학교 위탁형'에서 '가정-교회 연계형'으로 바뀌도록 기도합니다.
2.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10만 권의 성경을 보내려 합니다. 성경 배포 운동으로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7



에스더 4:1~17

## 금식 기도와 신앙의 결단

### 하나님 찬양하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새 545, Ab→G) 나의 영혼이 잠잠히 (경배와 찬양, A→G)

**Focus** | 믿음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생을 결단하게 합니다.

###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윌슨과 켈링은 구석진 골목에 차량 2대를 일주일간 주차해 놓고 실험했습니다. 한 대는 그냥 두고, 다른 한 대는 앞 유리창을 조금 깨뜨린 상태로 두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서 살펴보니 유리창을 조금 깨트린 자동차는 폐차 직전일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멀쩡한 상태로 주차해 놓았던 차는 처음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1980년대 치안이 불안했던 뉴욕시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사회 정책에 반영해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웠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지하철 사건 사고가 급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과 주변에서도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나 하찮아 보이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뉴욕 지하철 내 낙서를 모두 지우기로 한 작은 결정이 범죄율 감소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의 결정과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더 4:1~17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4장은 유다 백성이 하만의 간교한 계획과 흉계로 인해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기록합니다. 하만의 치밀한 흉계로 인해 유다 백성을 멸하라는 아하수에로왕의 조서가 제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3:14). 이 소식은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과 모르드개에게 알려집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모르드개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곳에서 하만의 흉계와 악랄한 계획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을 속여서 눈을 가리고 부정하게 축적한 재물을 왕에게 상납하는 것으로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하수에로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막강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교한 하만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에 속아 수많은 무고한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개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었고, 에스더는 희생을 각오한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하만의 간계로 인해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개와 각 지방의 유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1~3절)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해설 제국의 모든 유다 백성을 진멸하라는 아하수에로왕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만의 간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서가 공포되자 바사 전역의 유대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은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성중에 나와 대성통곡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나 선지자로부터 멸망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니느웨 백성 가운데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욥 3:5~6). 당시 문화에서는 장례 때 입는 굵은 베 옷을 입고는 성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모르드개가 이처럼 행동한 것은 그의 애통한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에스더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의 반응 역시 모르드개와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그들을 재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애통하고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성경에 나타나는 금식은 회개를 위한 금식(삼하 12:16~23), 성결을 위한 금식(출 34:28),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삼하 1:12), 간구를 위한 금식 등이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이 애통함으로 했던 금식을 보면서 무분별하게 금식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슬픔과 애통과 간구의 표현으로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높은 영적 수준과 내면

의 성결을 위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만이나 아하수에로를 찾아가 간청하는 대신, 그들에게 남아 있던 자존심과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실 분임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관찰과 묵상 2**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개 말에 에스더는 어떻게 결단했나요?(13~17절)

모르드개의 말에 에스더는 “나도 ...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16절)라고 결단했습니다.

**해설** 왕후 에스더는 애통해하는 모르드개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유다 백성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간계를 알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왕 앞에 나아가 구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바사 제국에서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에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13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14절).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모르드개의 말에 에스더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함께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백성과 더불어 어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적용과 나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담대히 수행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보면 마치 멘토가 사랑하는 멘티에게 하는 권면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은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없는 가슴은 선교지이고, 예수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때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아하수에로왕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은 이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한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엡 4:1).

#### 말씀 다지기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더, 유다 백성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진심 어린 애통과 금식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 하만의 간계가 드러났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궁핍과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무소불위 특권 의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이 땅에서 특권 남용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2. 이란 대법원이 가정교회 모임이 국가안보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란이 이슬람교를 버리고 진리의 터 위에 서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 4:16



에스더 8:1~10

## 새로운 조서, 반전의 은혜

하나님 찬양하기

나같은 죄인 살리신 (새 305, G)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경배와 찬양, G)

**Focus** | 위기 때에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를 구하면, 주권자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1994~2002년에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전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남 산청의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농사일하는 부모님 아래 자랐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버지는 아들을 대구로 중학교 유학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성적이 나왔는데, 반에서 68명 중 68등으로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 농사지으며 고생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68'이라는 숫자를 살짝 지우고, '1'을 써넣었습니다. 갑자기 꼴찌에서 1등이 된 것입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간 그는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겁이 난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부끄러움에 죽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대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33년 전의 일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 아버지... 실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요..." 말을 막 시작하려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들 듣는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위해 재산 목록 1호를 기꺼이 잡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로 나뉘었던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경험이 있었나요?

**말씀열기**  본문 읽기 에스더 8:1~1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7장과 8장은 상황의 급속한 반전을 통해 의인과 악인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 줍니다. 바사 왕 아하수에는 중신들 외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금했습니다. 심지어 왕비라 해도 허락 없이 궁정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왕이 규를 내미는 것입니다. 아하수제로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다인을 멸절하려던 제국의 2인자 하만의 흥계가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한 번 반포된 왕의 조서는 돌이킬 수 없으며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의 멸절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하만의 흉계로 반포된 왕의 조서를 돌이키고자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앞에 나아갑니다.

모르드개의 믿음과 에스더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모르드개를 처형하고자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곧 생명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사건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아하수에로왕은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집과 반지를 각각 누구에게 주었나요?(1~2절)

아하수에로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었습니다.

해설 나봇의 포도원 사건(왕상 21장)을 보면, 그 당시 죄를 범한 범죄자의 소유물은 모두 왕에게 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왕은 음흉한 꾀계로 죄를 범한 하만의 모든 소유를 압수해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1절). 그뿐만 아니라 하만이 끼던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모르드개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모르드개는 제국의 제2인자인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와 하만의 대조되는 모습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아하수에로왕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하만이 누렸던 엄청난 재산(3:9)을 누리게 합니다. 결국 흉계를 꾸뻤던 하만은 처형당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그의 재산을 받았으며, 하만의 권력과 지위는 모르드개에게 주어졌습니다.

적용과 나눔 역울한 상황이나 고난이 반전되어 오히려 내게 복이 된 일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고, 실패를 바꾸어 공덕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붙들었던 믿음입니다.

전화위복의 주권자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삶에 드리웠던 어두움의 그림자를 거두시고 생

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적 하만에게서 집과 재물을 취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끼워 주는 반지를 통해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

**관찰과 묵상 2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뜻대로’(8절) 조서를 쓰라고 허락합니다. 이 조서는 어떻게 작성되고 전달되었나요?(9~10절)**

왕의 서기관을 소집해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아하수에로왕의 명의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각 지방에 전했습니다.

**해설** 전화위복의 반전으로 유다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반포된 조서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반포한 조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이미 처형되었지만, 유대인 학살에 관한 왕의 조서(3:13)는 여전히 유효했던 만큼 에스더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앞에서 서서”(4절). 왕이 그앞에 나아온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민 것은 왕의 권위와 통치권으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더의 청을 수락한 아하수에로왕은 모르드개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에 모르드개는 서기관들을 모아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제국의 각 지역 문자와 방언으로 번역해 신속하게 전달하게 합니다.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어 이전 조서가 철회될 때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망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반포된 죽음의 조서가 폐하여지고,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담은 새로운 조서가 제국 전역에 반포되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움츠리고 피하게 됩니다. 또한 큰 성공을 이루면 그 성공에 취해 자족하며 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앞에 있는 뜻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한결같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모습을 보면 바울과 흡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왕앞에 나아가 청하는 모습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앞에 있는 뜻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감당했기에 유대 공동체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극심한 고난과 저주 앞에 놓였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에스터를 왕후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때가 되자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목숨을 걸고 주어진 사명에 순종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제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우리 민족은 6·25 전쟁 기간에 300만 명 가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서아프리카 기니 공화국에는 3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생명의 삶' 175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 마음에 새기기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아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에 8:8

# 생명의 삶 + PLUS

발행인 이형기

편집장 김종민

편집 정재연

디자인 공유나

사진 정화영·한치문

광고 강현구·전효정·주설화

정기구독 정재학

잡지영업본부 김한중

발행일 주후 2022년 6월 1일 발행

통권 186호

발행처 (사)두란노서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5길 38)

인쇄처 (주)아트프린팅

편집 02-2078-3408~9 팩스 070-4275-0235

이메일 qtplus@duranno.com

영업 02-2078-3333

광고 02-2078-3460~3463

정기구독 02-2078-3200

전국지사 부산 051-894-0198 / 제주 064-726-0726

해외지사 오사카 81-06-6170-6802

LA 1-213-382-5400

(http://www.usaduranno.com)

대만 886-2-2931-9066

라틴 57-1-742-6738

「생명의 삶 + PLUS」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

「생명의 삶 + PLUS」에 실린 글, 사진, 그림은 「생명의 삶 + PLUS」의 서면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본서에 사용한 영어 성경 NASB는 The Lockman Foundation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Scripture taken from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copy; Copyright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5, 1977, 1995 by The Lockman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 주소변경 신청

02-2078-3200 serve@duranno.com

1년: 150,000원

## 온라인 입금 계좌

예금주 : (사)두란노서원

국민은행 : 803301-04-000914

하나은행 : 573-810030-10905

농협 : 094-01-154340

우리은행 : 1005-501-106641

## 구독료 납입 방법

· 온라인(국민, 농협, 하나, 우리) 또는 수기카드(국민, BC, 삼성, LG)

또는 자동이체(CMS)로 일시불, 2회 분할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후에는 "꼭"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신청 시, 첫 달은 선발송이나 다음 호부터는 입금 확인 후 발송됩니다.

## 단체 구독 안내

· 단체로 정기구독을 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우리교회 QT지 제작 문의 02-2078-3455

## 재구독 혜택

· 재구독을 신청하시면 1개월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구독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구독 신청하시고 선결제하실 경우

구독료를 3% 할인해 드립니다(단체구독자 및 해외 항공료 제외).

## 해외 1년 정기구독 안내/비행기편

1지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

책값 150,000원 우편료 60,000원 합계 210,000원

2지역 필리핀, 타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구 버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책값 150,000원 우편료 78,600원 합계 228,600원

3지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디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덜,

파키스탄, 유럽, 러시아, 중동아시아

책값 150,000원 우편료 99,000원 합계 249,000원

4지역 중남미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태평양 서인도제도

책값 150,000원 우편료 148,800원 합계 298,800원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희 편집부는 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 주신 의견들은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 + PLUS」를 만드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qtplus@duranno.com

## 생명의 삶 Plus 정기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정가의 최대 20% 할인

- 개강 일주일 전까지 등록 및 입금 시

(※ 일부 세미나 및 중복 할인 제외, 할인 혜택은 정기구독자 본인만 해당)